

지역사회,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손 잡았다

광주시-국회의원-시민단체 등 '시민협의체' 협약 아특별 개정안 국회통과·자원확보·고용승계 노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손을 잡았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는 16일 오전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정상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개관한 문화전당의 운영방식 결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지역사회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출발이 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지역사회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뿐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아특별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한 유무형 자산의 승계, 인적·물적 자원 확보가 필요 하다는데 합의하고, 개정안 통과 이후 문화전당 운영과정에서 전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동 노력한다 등이다.

그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은 수 차례 간

담회를 통해 아특별 개정안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6일 '문화전당 운영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병훈 의원은 "아특별 개정안이 올해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상실되는 위기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중화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 시민연대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시민협의체가 협력해 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협약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 인식과 대안에 대해 광주공동체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용섭 광주시장이 16일 오전 동구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 협약식에 참석해 이병훈 국회의원, 5·18단체, 문화분야 단체대표 등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하루빨리 문화전당이 제 기능을 다하고 록 힘과 지혜를 모아 개정안이 국회에서 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바람잘날 없는 그린카진흥원 '광주형일자리' 우려

바람잘날 없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광주형일자리제대로 성공시킬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진흥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1대 주주로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갑작스러운 사퇴로 인해 새 원장이 취임한 진흥원이 또다시 경영본부장이 사퇴하는 등 조직 내 내용이 끊임없이 끊어지고 있다.

경영본부장은 직원들과 노조 측의 두 차례에 걸친 대자보 논란을 겪은 뒤 사표를 던졌다.

문제는 지난 2011년 설립된 진흥원의 내용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김덕모 원장이 새로 취임

원장 3명 중도하차...신임 원장도 시의회·시민단체 '못매'

한 진흥원은 제1대 원장을 제외하고 3명의 원장이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을 지낸 4대 배정찬 전 원장은 임기를 1년 2개월 넘겨 두고 자진사퇴했다. 배 전 원장은 석연치 않은 논란에 이어 시 특검감사를 받은 뒤 돌연 사퇴했으며, 특검 감사 결과는 배 전 원장이 사퇴할만한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시측의 말을 듣지 않은 배 전 원장에 대해 압박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3대 원장 역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1년9개월만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차했다. 당시 직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있었다.

이처럼 원장들 대부분이 광주시나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사표를 던져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이 최근 취임한 현대차 출신 5대 원장 역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못매를 맞아 중도 하차라는 악몽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광주참여자치21은 최근 성명을 내고 "GGM과 광주시는 이미 GGM 부사장을 현대차 임원 출신으로 임명한 데 이어 진흥원장까지 현대차 임원 출신을 선임해 상상·협력 기반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도 박광태 GGM 사장과 박광식 부사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으로 채택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좀더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같은 진흥원의 끊임없는 내용으로 GGM의 자동차 생산라인 구축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성공시키기 위한 목표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장과 직원들 모두 문제가 있다 보니 내용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신임 원장은 현대차 울산공장 품질관리, 중국공장 건립 등 실무를 맡았고, 현대차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영능력을 갖춘 만큼 내용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도, '법률 사각지대' 외국인 주민 지원 인권침해·임금체불 등 전화·방문·출장상담 추진

전남도는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도움을 받지 못한 도내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노동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상담서비스는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061-272-1560)와 '여수이주민센터'(061-662-8166)를 통해 지원된다. 상담은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을 비롯해 가사사건·인권침해 등 외국인 관련 법적사건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로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고, 찾아가는 출장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스리랑카어 등 통역도 지원한다. 센터에선 노무사 자문과 변호사 상담과 함께 고용노동지정,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상담서비스 기회를 늘려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법률문제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전남대·순천중앙병원 '코호트 격리' 1면에서 계속

접촉자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7일부터 열흘간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과 화순 등에서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전남 252번 확진자는 순천중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30일까지 병원 6병동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순천 중앙병원 6병동에는 환자 40여명이 입원해 있고, 간호사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지역감염 211명, 해외유입 48명 등 모두 259명이다.

중수본은 우선 간호사 17명, 간호조무사 4명 등 의료인력 21명을 지원했다. 신경외과 의사 2명,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11명 등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도 이날 순천에 거주하는 3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255-257번으로 분류됐다.

전남 255-257번 확진자는 아구마을 시장인 전남 239번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에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들은 광주 546번(전남대병원)

전남 하수도정비지역 공모 '전국 최다'

도, 전국 26개소 중 8개소...국비 1,102억 확보

전남도는 올해 환경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에서 도내 6개 시·군의 8개 읍·면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지역은 하수관로 정비, 빗물 저류지·빗물 펌프장 설치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국비(70%)를 지원받아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구례·담양·함평 등 6개 군은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경우 배수가 곤란하고, 하수관로 통수능력이 부족해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곳에는 국비 1,200억원이 투입돼 하수관로 정비·빗물 저류지 및 빗물 펌프

장 설치 등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한다.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1.68km의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 펌프장 8개소 증설 등이 주요 사업이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완도완도읍과 함평 학교·월야면, 무안 망운면, 영광 영광읍, 담양 담양읍, 구례 구례읍·마산면 등 지역에서 추진된다.

배수펌프장은 담양 3개소를 비롯해 완도·함평 각 2개소, 구례군에 1개소가 구축된다.

전남도는 올해 초부터 공모준비내에서 자체 수요조사와 용역추진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 사업개발 논리를 마련했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공모로 전남의 많은 지역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광고국 062) 720-1016, 1017
팩스 062) 720-1020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저지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온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호남지사 062-417-4717 / 010-3602-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회환 3단
근조회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